

동시대 사건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연구*

L코믹스 사태를 중심으로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y for Contemporary Incidents

고나경(Go, Na Gyeong)**

1. 머리말
2. 이론적 배경
 - 1) 동시대 사건 기록화의 개념
 - 2)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개념과 의의
3. L코믹스 사태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
 - 1) 맥락 분석
 - 2) 기록 조사
4. 면담 연구
 - 1) 초점 그룹 면담
 - 2) 기록전문가 면담
5. L코믹스 사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
 - 1) 기록화 목표와 방향
 - 2) 기록화 원칙
 - 3) 기록화 범주
 - 4) 기록화 주체
 - 5) 고려사항
6. 맺음말

* 본 논문은 고나경의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을 요약·수정된 것임.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165a6h@gmail.com)

■ 투고일: 2019년 09월 30일 ■ 최초심사일: 2019년 10월 02일 ■ 최종 확정일: 2019년 10월 15일

■ 기록학연구 62, 185-224, 2019, <https://doi.org/10.20923/kjas.2019.62.185>

〈초록〉

최근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로 인하여 거듭 발생하는 동시대 사건들은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들이 주요 행위자로 개입한 동시대 사건의 기록화 방법론으로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주목하며, L코믹스 사태를 중심으로 동시대 사건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시대 사건 기록화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개념과 의의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며, L코믹스 사태의 개요, 특징, 전개 과정과 핵심 사건, 초점 그룹 분석으로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고 온라인상에서 확인되는 관련 기록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사건 이해관계자 및 기록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L코믹스 사태의 기록화와 동시대 사건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결론에 이르러 본 연구는 L코믹스 사태의 기록화 목표와 방향, 원칙, 범주, 주제 그리고 고려사항을 차례로 논하며 L코믹스 사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동시대 사건 기록화, 도큐멘테이션 전략, 웹툰, 웹소설, 플랫폼 노동

〈Abstract〉

The contemporary incidents, in which hatred toward the socially disadvantaged is the cause, are constantly evoking archivists' social role and responsibility. This study notes the documentation strategy as a way to document contemporary incidents involv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as the main 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ocumentation strategy for documenting contemporary incidents around the L Comics issue. As a theoretical study, it examines the concept and significance of contemporary incidents documenting and documentation strategies. Through an analysis of the issue's overview, features, key events, and focus groups, the context of the issue was identified, and relevant online records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and experts, opinions on the documentation strategy of the L Comics issue were collected. In conclusion, the study discusses the objectives, direction, principle, category, subject and considerations for documenting the issue, and proposes the documentation strategy for it.

Keywords : documenting events, documentation strategy, webtoon, webnovel, platform work

1. 머리말

공공 영역을 중심에 두었던 국내 기록학계의 논의가 민간기록과 공동체기록으로 확장되면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라는 대안적 기록화 방법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내외 다수의 연구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록을 담는 도구이자 방법론으로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주목하며, 동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어 전략이 갖는 효과성을 논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젠더, 장애, 노동자, 인종 등을 향한 혐오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건들이 거듭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동시대 사건은, 사건의 사회적 함의를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며 갈등을 치유하는 기록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재소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행된 도큐멘테이션 전략 연구의 대부분은 공공 영역이나 지역, 공동체의 기록 수집을 목적으로 하며,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적용한 동시대 사건 기록화 연구의 경우도 국가권력과 시민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드러나거나 국가적 재난으로서 전국적 관심을 모은 사건들을 기록화 대상으로 포착해 왔다. 이러한 영역으로 기록학계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는 현상은 물론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다만 본 연구는 앞선 연

구자들이 이야기하는 작은 아카이브의 증식과 다양한 소서사의 공존에 공감하며, 이를 지향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의 대항기억을 담아내는 방법론으로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며, 기존 질서에 대한 중단 없는 의심으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아카비스트의 관점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인식할 것이다.

L코믹스 사태는 자본과 정보력을 가진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맞서 프리랜서 창작 노동자들이 연대를 결성하고 대응하여 마땅한 권리를 찾고자 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기업과 노동자의 갈등이라는 사적 영역의 문제, 당사자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넓게는 차별과 억압으로 다져진 시스템 아래에서 고통 받는 개인들의 문제이며, 그 누구도 이러한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동시대의 사건 중 하나가 된다. 한편 사건이 내포하는 몇 가지 특징들은 이제까지 관련 연구 분야에서 다른 사건들과 구분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L코믹스 사태의 기록화를 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L코믹스 사태를 중심으로 동시대 사건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동시대 사건 기록화의 개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건을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이라 설명하고 있다(표준국어대사전 2019). 역사사회학에서는 사건을,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은 행위자가 구체적이고 물리적으로 그 구조를 재현한 것이라고 이해한다(채오병 2009, 163).

Philip Abrams(1986)는 사건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으며, 사건은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건은 행위와 사회구조의 매개체인 셈이다.

한편 William Sewell(1996)은 사건으로 인하여 구조가 현저히 변형되며 그 과정에는 반드시 사건의 연쇄가 개입된다고 생각하였다. 사건의 연쇄로 변형된 구조는 이전의 구조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 Abrams 또한 사건은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다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과거와 현재 간의 변형 수단’이라고 하였다.

Abrams에 따르면 사건의 정체성과 의미는 사건이 일어난 맥락, 그리고 다른 사건들과의 관계에 의해 정해진다. 사건은 세부사항들의 집합이다. 그러나 모든 세부사항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사학에서는 세부사항들 중 특히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사건을 설명한다. 선별한 세부사항들로 사건의 원인과 결과, 맥락 간에 관계를 지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건은 연구자(혹은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Abrams 1986, 227-229).

이와 관련하여 Larry Griffin(1992)은 사건을, 연구자가 역사를 분석하여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개체라고 정리하였다. 사건은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어떤 내러티브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설정된다(채오병 2009, 162). 내러티브는 사건의 연쇄이며, 이 연쇄는 논리적인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단순하고 선형적인 서술에서 벗어나 사건의 인과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서술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 순으로 배열된 사건 구조에 각 사건의 맥락과 사건들 간의 관계를 추가하여 새로운 사건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사건은 누군가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구조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또한 사건은 시간의 흐름과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세부 사건들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구성되고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동시대 사건 기록이라 함은 누군가의 행위

에 의해 발생하여 사회구조를 극적으로 변형시키는 어떤 일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말하며, 사건이 과거 또는 미래와 인과적으로 연결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사건 전후로 생산된 관련 기록까지 사건 기록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기록을 선별·수집하여 사회의 표상으로서 사건을 재현하고 기억하려는 기록학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1970년대 이후로 계속되어 왔다. 몇몇 아키비스트들의 노력은 거대담론에서 배제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목소리를 남기려는 시도였다. 동시대 사건 기록화는 정부나 주류 아카이브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포착하고 공식기록이 담지 못하는 내용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병우(2015)는 사건 기록화를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피해자나 약자, 소수자의 행위와 생각을 남길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 표현하며, 이를 “열린사회의 중요한 요소”이자 “민주적인 기록관리의 핵심”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시대 사건 기록화를, 권력에 귀속되지 않은 전문직으로서의 아키비스트가 사회적 약자가 사건의 주요 행위자로 개입한 동시대 사건의 기록을 동시적, 의도적, 민주적으로 수집, 생산,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개념과 의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사회적 기억과 아키비스트의 책임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사회운동, 소수집단, 주류 아카이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를 기록으로 포착하려던 아키비스트들의 노력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Howard Zinn(1977)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기록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반면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기록이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 욕망, 요구에 대한 기록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회 주변부에 위치한 이들이

국가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전통적 기록관리에서 아키비스트는 기록을 보호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렀고, F. Gerald Ham(1975)은 이러한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수집 정책의 부재를 야기한다고 보았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이처럼 아키비스트의 행동주의가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기록학 개념과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접근법으로 제시되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4년 SAA 연례회의에서 시작되었다. 논의의 결과로, Helen Samuels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진행 중인 사건, 활동 또는 지역을 기록하기 위해 공식화한 계획”이라 정의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아키비스트, 기록생산자, 이용자의 참여로 설계되고 기록과 관련한 다수의 기관과 개인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며, 환경과 관점의 변화에 따라 개정된다는 특징을 가졌다. 전략에는 기록화 주제의 설정, 자문기관 선정과 기록화 기관의 설립, 기록 조사, 기록 선별이라는 네 가지 활동이 포함되었다(Samuels 1986, 115-116).

이후 Larry Hackman과 Joan Warnow-Blewett는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과 사례에 대해 논함으로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들이 제안한 모델에 따르면,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기록화 영역의 정의와 사건에 대한 예비분석, 전략서 작성, 도큐멘테이션 그룹의 전략 실행, 기타 그룹의 전략 실행, 기록화 활동 보고, 기록화 영역의 재정이라는 여섯 단계로 구성된다(Hackman & Warnow-Blewett 1987, 1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 절차에 근거하여 L코믹스 사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사건 정보를 모으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기록화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면담연구를 실시하였다.

3. L코믹스 사태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

기록화 대상의 예비 분석은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기록화 영역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L코믹스 사태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으로서 사건의 개요, 특징, 전개 과정과 핵심사건, 초점 그룹을 중심으로 사건의 맥락을 분석하고 기록 조사를 수행하였다.

1) 맥락 분석

(1) 개요

L코믹스 사태는 웹툰 플랫폼 L코믹스의 불공정행위로 촉발되어 약 1년 동안 이어진, 웹툰·웹소설 작가들과 사측 간의 갈등과 대립을 총체적으로 이룬다.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종료, MG(Minimum Guarantee) 제도, 지체상금(지각비) 제도, 해외 서비스 정산 문제, 작가 블랙리스트 운용, 폭언과 가스라이팅을 비롯한 갑질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여론 조작, 저작권 편취 문제가 있다.

2017년 8월, 사측은 웹소설 작가들에게 이달 내로 웹소설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고 무단 통보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웹소설 작가와 웹툰 작가들 사이에서 L코믹스의 불공정행위로 입은 그간의 피해가 연달아 폭로되었고, 이는 공론화를 거치며 대중에 알려졌다. L코믹스는 회사에 타격을 줄 만한 논란이 일어나면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바라기보다 사태를 유아무야 넘기거나 작가들의 입을 막으려는 모습으로 일관하였기에 갈등은 오래 지속되었다(한겨레 2018).

2018년 12월, 서비스 초기부터 작가주의를 표방하던 L코믹스가 소속 작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웹툰·웹소설 작

가들은 공동 연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나섰다. L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이하 레규연)는 집회와 국회 기자회견 등의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언론 인터뷰나 해시태그 운동 등을 통해 사건을 외부에 알렸다. 그 과정에서 동료 작가, 독자, 관련 단체 및 기관이 피해 작가들과 레규연을 지지하고 협력하였으나 반대로 L코믹스를 옹호하고 작가들을 비난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오마이뉴스 2018).

국회 간담회 이후 두 차례의 협상 과정을 거쳐 2018년 7월, 레규연은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냈고,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합의안의 이행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2018년 9월, L코믹스 대표의 미성년 작가 저작권 편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되며 레규연과 피해 작가가 함께 투쟁하였다. 현재 레규연은 직접적인 활동 없이 웹툰·웹소설 작가연대의 상징으로서만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2) 특징

L코믹스 사태는 사적 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전개되었고, 다수의 사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예술계 불공정, 특수고용노동, 여성혐오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사건으로 파악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L코믹스 사태는 웹툰·웹소설 작가들과 플랫폼의 이해갈등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적 영역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사건의 의미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작가들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정치권이나 언론의 관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은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정한 개인이나 업계 내부의 문제를 넘어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는 성격을 갖는다. L코믹스 사태와 관련하여 한 칼럼에서는 “불통과 밀실 행정, 여론 통제, 블랙리스트 관리”라는 유사성을 언급하며 L코믹스와 박근혜 정부를 겹쳐보았다(경향신문 2018).

L코믹스에 소속된 작가뿐만 아니라 타 플랫폼 작가, 독자, 협회, 시민단체, 유관 업계의 창작 노동자들이 마치 본인의 일처럼 분노하고 피해 작가들에게 연대 의사를 밝힌 것 또한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L코믹스 사태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전개되었다. 이는 사건의 주요 행위자인 웹툰·웹소설 작가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작가들끼리도 서로의 얼굴을 알지 못하며, 서로 교류할 기회 또한 흔치 않다. 이에 작가들은 트위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 공론화를 시도하였다. 서브컬처에 친화적이고 사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트위터에서 비교적 L코믹스를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쉬웠을 것이다. 한편 작가와의 거리가 가깝고 익명으로 발언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사측과 대립하는 작가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사건의 공간적 배경은 온라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L코믹스의 불공정 및 갑질 행위는 오프라인에서의 일이었고, 집회와 기자회견, 간담회 등 문제의 실제적 해결을 위한 활동 또한 오프라인에서 전개되었다. 다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건 행위자들이 관계를 맺고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동시대 사건이 지니는 특성을 일정 부분 표상하기 때문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현실에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L코믹스 사태는 다수의 사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영향을 받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고, 여러 사건에 동일한 사건 행위자들이 중복으로 개입하였다. 하나의 사건이 둘 이상의 쟁점을 포함하거나, 하나의 쟁점에서 복수의 사건이 야기되었다. 또한 과거의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시간적 공백을 두고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건마다 진행 과정에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별 사건은 최초의 불공정행위와 갑질, 작가의 문제 제기 또는 폭로, L코믹스의 부정 또는 해명, 작가의 대응, L코믹스의 맞대응, 사회적 압박, 협상과 합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L코믹스 사태는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슈와 얽혀 있다. 사건에 내재된 문제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예술계 불공정 문제다. 레규연은 투쟁 과정에서 웹툰·웹소설 작가는 노동자이며 작품 활동은 예술이기도 하지만 노동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대중에 인식시켜야 했다. 웹툰·웹소설에 대한 대중의 몰이해는 플랫폼이 작가를 대하는 방식과 이어진다. 직업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웹툰·웹소설 작가들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갑질에 노출되었을 때 노동법에 의지할 수 없고, 노동자로서 받는 사회복지혜택을 누리기도 어렵다.

관형처럼 굳어진 예술계 불공정에 특수고용노동 이슈가 더해져 문제는 악화되었다. 웹툰·웹소설 작가들은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연재하고 수익을 얻는 플랫폼 노동자다. 실질적 노동 부담을 혼자 지게 되는 프리랜서 작가들은 기존 노동 정책의 미흡함과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 한다. 기형적인 웹툰 플랫폼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언론기사에서는 L코믹스 사태를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에 대한 거의 최초의 노동 분쟁”이라고 표현하였다(쿠키뉴스 2018).

한편 피해가 확인된 작가들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었고, 레규연 또한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L코믹스 사태가 여성혐오 이슈와도 맞물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L코믹스 사태는 2016년 서브컬처계의 빅이슈였으며 여성혐오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티셔츠 사태와 예스컷 운동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위근우 2019, 53). L코믹스 사태 이후의 행보가 여성 디지털콘텐츠 창작 노동자를 위한 노조 설립이었다는 것 또한 이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3) 전개 과정과 핵심사건

L코믹스 사태 자체는 사측이 웹소설 서비스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2017년 8월부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2018년 7월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당시 논란이 된 문제 중에는 2017년 8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와 실시간으로 일어난 피해가 혼재하였다. 1년 동안 이어진 작가들과 L코믹스의 대립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랜 갈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더불어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다고 해서 불공정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것도 아니었다.

사건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한 기록화를 위해서는 2017년 8월과 2018년 7월 전후의 관련 사건들을 망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운영이 시작된 2013년부터 작가들이 노조를 설립한 2018년 12월까지를 L코믹스 사태 기록화의 시간적 범위로 정의하고, 사건의 국면이 뚜렷하게 전환된 시점을 시기 구분의 기준으로 삼아, L코믹스 사태의 전개 과정을 동요, 촉발, 연대, 공식화의 네 단계로 나누었다.

첫째, 동요 단계(2013. 4.~2017. 7.)는 L코믹스가 처음 서비스된 2013년부터 L코믹스 사태의 직접적 계기인 웹소설 서비스 졸속 종료 사건(이하 웹소설 사태)이 일어나기 전까지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작가들은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개별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였다. 2015년,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서 변경을 둘러싸고 일부 작가들이 문제 해결을 도모하였다. 당시 작가들은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조건 일부를 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촉발 단계(2017. 8.~2017. 12.)는 웹소설 사태로부터 L코믹스의 작가 블랙리스트 운용 정황이 보도되기 전까지에 해당한다. 2017년 8월, 사측은 작가들과의 사전 논의 없이 적자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웹소설 서비스 종료를 통보하였다. 불과 두 달 전 웹소설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였고, 해당 월에도 신작이 런칭된 상황이었다. 이에 웹소설 작가들이 모여 전략적으로 L코믹스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웹툰 작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 L코믹스의 소통거부로 인하여 축적된 불만과 피해 경험을 폭로하였다. 일련의 공론화 활동을 거치며 업계 내에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고, 이때부터 L코믹스의 불공정과 갑질 행위가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사측은 작가 커뮤니케이션 부서 신설을 계획하고 작가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셋째, 연대 단계(2017. 12. 22.~2018. 7.)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시작하여 L코믹스의 공식 사과로 끝난다. 이 시기에 웹툰·웹소설 작가들이 하나로 결집되고, 독자와 다수 협력 그룹이 연대의사를 표명하였다. 2017년 12월 22일 일요시사의 보도로 L코믹스가 웹툰 작가 블랙리스트를 운용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 갈등이 심화되었다. L블랙리스트 반대연대가 활동을 시작하고, 피해 작가들은 자신이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알리는 글을 게시하였다. L코믹스에 소속된 일부 웹툰 작가들은 연대의 뜻을 밝히며 장기 휴재 및 연재 중단을 선언하였다. 한편 사측에서 웹소설 작가와 에이전시 소속 작가의 간담회 참석을 금지하여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2018년 1월 웹툰·웹소설 작가들은 작가 간담회 날짜에 맞춰 규탄 집회를 준비하였다. 집회 당일 SBS에서 블랙리스트 운용 증거를 보도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어서 곧바로 웹소설 작가 블랙리스트, 일명 강성작가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웹툰·웹소설 작가들은 레규연이라는 이름의 단일 연대를 조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 활동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도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1월 30일, L코믹스 측에서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을 고소한 사실을 전해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여러 단체에서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만화가협회(이하 만협)에서는 피해 작가 소송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2018년 2월, 레규연은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2차 규탄 집회를 진행하였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년 5월에는 레규연과 L코믹스 임원진 등이 국회에 모여 사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레규연과 L코믹스는 두 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8년 7

월에 합의하였고, 사측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레규연은 사측으로부터 피해 작가에 대한 소송 취하와 운영 시스템 개선, 저작권 전액 반환, 계약서의 불공정한 독소조항 수정, 웹소설 간담회 개최를 약속 받았다.

넷째, 공식화 단계(2018. 8.~2018. 12.)는 L코믹스의 공식 사과 이후로 노조가 설립되기까지를 이른다. 2013년부터 이어진 L코믹스 대표의 미성년 작가 착취 및 저작권 편취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2018년 9월, 또 한 번 논란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하여 레규연은 작가지망생 착취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작권 편취 규탄 집회를 실시하였다. 그사이 L코믹스 웹소설 작가 간담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고, 2018년 10월, 사측은 웹소설 서비스 종속 종료를 공식 사과하였다. 2018년 12월, 레규연 소속 작가 일부는 일러스트레이터연대와 함께 전국여성노동조합 산하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이하 디콘지회)를 설립하고, 여성 프리랜서 작가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과 업계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4) 초점 그룹

L코믹스 사태의 주요 행위자로 어떤 개인과 기관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입장과 활동,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사건을 둘러싼 기록과 정보들을 서로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 L코믹스 사태의 행위자는 매우 다양하나 직접 당사자는 피해 작가들과 레규연, 이들과 대립하였던 L코믹스로 한정된다.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행위자로는 독자들을 비롯한 외부 협력 그룹과 협회, 레규연에 도움을 준 공공 영역의 개인 및 기관, 여러 언론매체의 기자와 평론가가 있다.

L코믹스 사태의 모든 사건 행위자들은 피해 작가들과 레규연을 중심으로 연결된다. 작가 그룹은 L코믹스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며 업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연대했다. 불공정 및 갑질 피해 작가

들, L웹소설작가진, L블랙리스트 반대연대, 레규연이 이 그룹에 속한다. 웹툰·웹소설 작가들의 구심점이 된 레규연은 L코믹스 소속 작가들뿐만 아니라 타 플랫폼 작가들이 함께한 연대로, L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 집회와 시위, 국회 기자회견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자발적으로 모인 작가들의 느슨한 단체이기 때문에 명확한 조직 체계나 업무 분류 체계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직간접적으로 작가들을 도운 외부의 협력 그룹에는 만협과 웹툰작가협회, 참여연대와 청년참여연대, 을지로위원회, 유은혜 의원실, 서울시 공정경제과, 예술인복지재단,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시민사회와 공공영역의 행위자들은 작가들과 L코믹스의 간담회 자리를 주선하고, 레규연이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검토해주었다. 한편 창작자연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게임개발자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은 L코믹스의 작가 블랙리스트 사건 및 피해 작가 고소 사건 직후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여 웹툰·웹소설 작가들을 지지하였다.

언론 그룹에 속하는 각종 일간지, 주간지, 공중파 뉴스, 라디오 프로그램, 팟캐스트, 웹툰 전문 언론 웹툰인사이트와 웹툰가이드 등 다수 매체에서 L코믹스 사태를 다루었다. 오마이뉴스와 일요시사, SBS의 보도는 특히 사건 전개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 작가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건 내용을 정리·분석한 웹툰 전문 팟캐스트 웹투니스타와 다른 웹툰 평론가들의 역할도 컸다. 언론 그룹에는 L코믹스의 보도자료만을 내보내고 불공정 문제에는 의도적으로 침묵한 언론사들도 포함된다(미디어스 2018).

이외에 작가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온라인상의 비난 여론과 사건 외부에 존재하며 언론기사나 방송을 통해 사건을 접한 일반 대중은 여론 그룹으로 묶인다. 작가들의 편에 섰던 독자들 또한 이 그룹에 속한다. 다수의 독자는 트위터에서 사건 소식을 빠르게 퍼트리며 L코믹스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개진하는 동시에 해시태그 운동과 L코믹스 불매운동을 벌였고, 직접 공정위에 신고를 넣기도 하였다. 이 중 일부는 사건 내용을 정리하여 온라인에 게

시하거나 관련 기사, 웹페이지, SNS 게시물 링크 또는 캡처 이미지를 수집·공유하는 등 나름의 기록화 활동을 수행하였다.

2) 기록 조사

기록 조사 단계에서는 사건 행위자의 활동에 의거해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기록을 뽑아내고, 사건 행위자들과 접촉하여 남아있는 기록을 확인한 후 목록을 작성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건 행위자들이 생산한 문서나 사적 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개괄적 수준의 기록 조사를 진행하였다. L코믹스 사태와 관련된 기록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서로는 레규연과 L코믹스, 만협, 참여연대,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한 종이기록 및 전자기록이 있다. 세부적인 기록 유형으로는 성명서, 입장문, 회의록, 계약서, 고소장, 신고서,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집회구호문 등이 있고, L코믹스 측에서 생산한 문서는 해명문, 사과문, 간담회 발표자료, 보도자료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독자 중에서도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문,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작성한 사건 타임라인 등 문서를 생산한 경우가 있었다.

사진자료는 언론에서 생산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집회 현장사진 등 작가들이 직접 생산한 기록이 있겠으나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 영상자료 또한 마찬가지로 국회 기자회견 영상, 작가 인터뷰 영상, 뉴스 영상, 레규연에서 제작한 국민청원 및 집회 홍보영상 등 적은 양이 남아 있었다. 한편 작가들은 공론화가 필요할 때 텍스트를 이미지화하여 배포하였다. 특히 레규연에서는 입장문, 성명서, 휴재 공지문, 집회 Q&A 등을 이미지 파일로 게시하거나 피해 사례를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하였다. 집회에 사용된 포스터와 구호문도 이미지 파일로 남아 있다. 이외에 작가들이 만든 연대 로고나 피해 경험을 주제로 그린 웹툰 등의 이미지 자료가 있다.

사건과 관련한 박물은 상당히 적은 편으로 전단, 현수막, 피켓, 스티커 등 집회에서 쓰인 물품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가장 많이 생산된 자료는 단연 트위터 기록이다. 트위터는 각기 다른 장소에 위치한 작가들이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며,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공간이다. 작가들은 트위터를 통해 불공정 및 갑질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 사실을 폭로하였다. 트윗은 빠르게 확산되어 사건 공론화를 용이하게 하고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트위터는 또한 피해 작가와 L코믹스 소속 작가, 타 플랫폼 작가, 독자, 협회, 기타 협력 그룹이 연대를 확인하는 장으로 기능하였다. 트위터 기록은 피해 작가들과 레규언 계정, 해시태그 운동을 중심으로 기록의 휘발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빨리 수집해야 한다.

트위터를 통한 작가들의 증언 이외에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작가들과 사측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등이 있다. 이는 또한 L코믹스 공식 블로그의 게시글과 보도자료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L코믹스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L코믹스 사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활동의 비중이 큰 만큼 많은 웹페이지에서 사건이 언급되었다. 가장 먼저 공식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작가들의 개인 SNS 계정과 블로그가 있다. 또한 만협 홈페이지에도 사건 관련 공지글이 게시되었고, 그 밑으로 작가들을 응원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비난 여론은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 온라인 기사 댓글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청원 페이지와 사건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한 위키 문서도 주요한 웹페이지 중 하나다.

한편 언론자료로는 L코믹스 사태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취재한 기사와 뉴스 방송, 사건을 정리하고 분석한 기사, 피해 작가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팟캐스트와 라디오 방송 등이 있었다. 특히 웹툰 평론가가 진행한 팟캐스트는 L코믹스 사태를 시리즈로 다루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작가들의 실제 증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록의 가치를 갖는다.

〈표 1〉은 주요 기록생산자 및 기록 유형을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 1) L코믹스 사태 시기별 주요 기록생산자 및 기록 유형

시기	주요 기록생산자	기록 유형
동요 (2013.4. ~2017.7.)	웹툰·웹소설 작가, L코믹스, 독자, 비난 여론, 언론	트위터 기록, 개인 기록, 보도자료, 언론 기사, 칼럼
축발 (2017.8. ~2017.12.)	웹툰·웹소설 작가, L코믹스, 독자, 비난 여론, 언론, 협회	트위터 기록, 개인 기록, 블로그 및 커뮤니티 게시글, L코믹스 공지사항, 이메일, 문자, 입장문, 합의서, 국민청원, 언론기사, 칼럼
연대 (2017.12.22. ~2018.7.)	웹툰·웹소설 작가, 레규연, L코믹스, 독자, 비난 여론, 언론, 공공기관, 협회	트위터 기록, 블로그 및 커뮤니티 게시글, 이메일, 문자, 카드뉴스, 작품 휴재 공지문, 고소장, 공정위 신고서, 집회 신고서, 집회 홍보물, 구호문, 현장사진, 입장문, 해명문, 연대 성명서, 공문, 회의록, 문체부 및 공정위 보도자료, 협회 공지사항, 청원 독려 영상, 기자회견 영상, 작가 인터뷰 영상 및 오디오, 간담회 발표자료, 정책 변경안, 언론기사 및 뉴스, 라디오 방송, 칼럼, 만화, 레규연 홈페이지 및 SNS, 위키 문서, 사건 타임라인
공식화 (2018.8. ~2018.12.)	웹툰·웹소설 작가, 레규연, L코믹스, 언론, 시민단체	트위터 기록, 블로그 및 커뮤니티 게시글, 이메일, 문자, 작가 실태조사보고서, 고소장, 공정위 신고서, 입장문, 성명서, 홍보자료, 언론기사 및 뉴스, 칼럼, 만화

4. 면담 연구

면담 참여자로는 L코믹스에서 작품을 연재하고 레규연으로 활동한 웹툰·웹소설 작가 4명, 사건 당시 자발적으로 L코믹스 관련 자료의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 독자 2명, 레규연과 협력하여 L코믹스의 불공정행위에 직접 대응한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1명, 민간영역의 기록화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도큐멘테이션 전략 연구 경험이 있는 기록학 연구자 2명, 총 9명을 선정하였다. 한편 L코믹스는 사건 당시 언론 접대와 작가에 대한 루머

유포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이는 L코믹스가 거대자본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공식적 발언권을 갖는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본다. 동시대 사건 기록화는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는 목적의식 하에 L코믹스와 비난 여론은 면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면담 참여자와 면담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참여자 및 일정

참여자	그룹	직업	날짜	시간
A	레규연	웹툰 작가	2019. 4. 5.	163분
B	레규연	웹툰 작가		
C	레규연	웹툰 작가		
D	레규연	웹소설 작가	서면	
E	독자	작가, 편집자	2019. 3. 28.	120분
F	독자	작가	2019. 4. 10.	90분
G	외부 협력	시민단체 활동가	2019. 5. 3.	44분
H	기록전문가	연구자	2019. 3. 27.	60분
I	기록전문가	연구자	2019. 4. 1.	85분

1) 초점 그룹 면담

(1) 기록화 필요성 인식

면담 참여자들은 모두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건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작가 집단한테도 중요한 게, 이런 일(피해)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포기를 하게 권유해요. ‘많이 힘들 거고 원래 이런 건 이기기 힘들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줄어들 수 있게 해 준 사례를 만든 거니까)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가 A]

“기록이 되어야 불공정한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 레규연 활동이 노조 설립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하다.” [독자 F]

L코믹스 사태 기록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건이 갖는 의의와 기록의 증거적, 역사적 가치를 언급하였다. 작가 연대가 플랫폼을 상대로 싸워 이긴 경험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불공정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를 위해서 이 사건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레규연에서는 언론에다 얘기를 할 때 국회의원들 만나서 설명을 할 때 그런 것들(기업 운영의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L엔터테인먼트 사건 관련 타임라인을) 사용했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이 이렇게 공론화를 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 기자가 ‘정리된 거라도 있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한대요.” [독자 E]

“아카이브를 제일 잘 했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그거였죠. 어떤 사람이 시위 내용을 만화로 만들었는데 (참여자의) 80%를 남자로 그렸대요. 그러면서 와전이 시작된 거예요. 마치 레규연은 남자들이 힘을 보태서 이렇게 됐다.” [작가 C]

작가들의 경우 특히 레규연 활동 과정에서 기록의 유용성을 실감하였고, 몇 차례의 해프닝을 통해 연대 주체인 여성 작가들의 존재가 지워지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 기록화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레규연을 지지하는 분들이 산발적으로 아카이빙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 쪽에서도 하긴 했는데.” [작가 C]

한편 사건 초기부터 L코믹스 사태를 ‘아카이빙’하려는 다수의 노력이 있

었다. L코믹스 사태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로 구성되었고,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외부에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언론과 평론가, 국내외 독자들이 나서서 사건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기사나 웹페이지, SNS 게시물 링크를 수집, 공유하였다.

“이게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을 전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고, 연표랑 저희가 배포했던 자료, 성명서, 기사 등등이 정리가 되어서 홈페이지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작가 B]

“연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록화. (...) 영구적으로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것까지는 아직...” [작가 C]

L코믹스 사태를 ‘아카이빙’하려던 현재까지의 시도들은 사건 전개 과정과 인과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작가들은 레규연 공식 홈페이지를 아카이브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들은 기록학적으로 관리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홈페이지 자체도 아카이브보다는 사건의 2차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한계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자 중 일부는 L코믹스 사태 기록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기록화 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걱정하였다.

“그걸 과연 누가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서 아카이빙을 할 것인가. 너무 문제가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 [독자 E]

“(필요하긴 한데) 어디까지 얘기할 거고 어느 시점으로 얘기할 거냐, 모여서 누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해서는... 그것도 얘기를 나눠야 되고.” [작가 C]

기록화 영역, 기록화 주체와 관점의 설정 등 기록화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에는 별도의 노력과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기록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기록화 목표

L코믹스 사태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바는 결국 ‘아카이브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과 연결된다. 면담 참여자들은 아카이브가 다음과 같이 이용되길 바란다고 답하였다.

“플랫폼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 때문에 겁이 나는 사람이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 그런 분들이 보고서 희망을 얻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독자 F]

“이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 이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했구나.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 했고 실제로 이렇게 바뀌었구나. 혹은 안 바뀌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 혹은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겠다.” [활동가 G]

아카이브가 사건의 중심에 위치한 행위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주변으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한다고 할 때, 1차적 이용자 그룹은 불공정과 갑질 피해를 받는 작가(작가 지망생을 포함)들이 될 것이다. 면담 참여자들은 L코믹스 사태를 “선례”라고 표현하였다. 플랫폼의 횡포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혹은 언제라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작가들에게 L코믹스 사태는 투쟁의 “나침반”이자 승리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이전까지 웹툰·웹소설 작가의 노동 실태는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노동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언론의 주목도도 낮아 매번 트위터에서 시끄럽다 말 뿐이었다. 그러나 작가 D의 답변에 따르면, L코믹스 사태를 기점으로 업계의 불공정과 갑질 관행이 마스크를 타며 웹툰·웹소설 작가의 노동자성이 드러났고, 작가들 사이에서도 불공정 문제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은 작가 이외에도 플랫폼, 에이전시, 편집자 등을 포함하여 웹툰·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아카이브로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PD들이나 플랫폼을 할 사람들? (아카이브를 참고해서) 어떻게 작가 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매뉴얼화 됐음 좋겠어요.” [작가 C]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기를 바랍니다.”
[작가 D]

이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L코믹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음으로써 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의 근본이 해소되길 기대하였다. 활동가 G 또한 “불공정한 사례가 없어지기 위해서라도 L코믹스 사태가 제대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아카이브는 사건 당사자 그룹에서 나아가 사회 전체로 영향력을 넓혀야 한다.

“문체부 밑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좀 더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직군을 잘 몰라요.” [작가 C]

“불공정 사례들이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 기록을 보면 기업의 횡포를 제재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작가 B]

“사각지대에 놓인 창작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참고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작가 D]

“콘텐츠 관련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료로 쓰고 자기 저변을 확대하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작가 A]

작가들은 아카이브가 웹툰·웹소설 창작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업의 횡포를 제재하고 창작 노동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콘텐츠 분야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는 데 이용되길 바란다 고 답하였다. 사회적 인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그리고 학문적 변화는 공정한 웹툰·웹소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불가결한 일이다.

(3) 기록화 영역

“불공정에 대항하는 수많은 이들의 집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조직적으로 집합이 된 최초의 사건. 그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E]

“승리로 기억됐으면 좋겠죠. 이게 노조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잖아요. ‘1코믹스는 정말 못된 기업이었고 작가들은 모여서 일을 정말 잘 해냈다.’로 기억됐으면 좋겠죠.” [작가 B]

“기업들한테 두려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저희가 그냥 일개 소모품도 아니고 저희도 불공정한 걸 당하면 대응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인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존중 받고 싶어요.” [작가 C]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적인 연대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작가 D]

면담 참여자들 모두 L코믹스 사태가 작가 연대의 승리로 기억되길 바란다 고 답하였다. 이러한 바람은 L코믹스 사태를 보는 이들의 관점과 닮아 있었고, 동시에 L코믹스 사태의 함의를 담고 있었다. L코믹스 사태에서 기록해야 할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L코믹스의 불공정과 갑질 행위, 작가들의 연대와 대응 활동, 외부 협력 그룹의 활동, 이에 따른 L코믹스의 맞대응과 입장변화, 그리고 여론의 반응이 언급되었다.

“기업이 저지른 악행이 1순위고 그것에 따른 대처방법이 두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기업의 행동변화. (...) 다른 관점을 가진 그룹과의 대립도 그 과정 중의 하나였고 일반인의 업계에 대한 몰이해나 작가 혐오에 대한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 B]

“시위의 조직화와 여론의 변화들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연대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여럿의 서포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었으면 합니다.” [작가 D]

(4) 고려사항

면담 참여자들은 사건의 특징과 작가들의 직업 특성, 기록생산매체로서 트위터가 갖는 특징에 따라 기록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우려를 표하였고, 이는 L코믹스 사태 기록화에서 반드시 숙고해야 할 사안들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남길 만한 일도 있었을 텐데 그게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홈페이지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

고. (…) 지금 제 상태를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작가 B]

“저 같은 경우에도 기록(피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일부러 (사건 연표에서) 삭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좀 공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작가 A]

L코믹스 사태는 노동분쟁의 성격을 가지며, 개인과 기업의 사적 계약 문제가 얽혀 있다. 따라서 L코믹스 사태 기록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기록이 상당할 것이다. 더불어 독자들과의 거리가 가깝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웹툰·웹소설 작가들의 직업 특성까지 고려하였을 때, 이미 언론이나 트위터에서 공론화된 사건이어도 개인의 피해가 아카이브에 포착되길 꺼리는 반응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면담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게 보통 정산이나 계약이랑 관련되다 보니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건데. 만약에 아카이브가 비공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 B]

면담에 참여한 작가들은 기록의 공개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기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동시대 사건 기록화의 근본적 문제와 연결되는 지점으로 보인다. 작가 B는 “나중에 공개가 된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기록이 공개되어 그 영향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작가 C 역시 현시점에서의 공개는 어려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의 공개는 괜찮다고 덧붙였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나중의 일이고 기록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독자 E]

“기록할 때 조심했던 게 2차 가해가 될까봐… 었거든요. 만약에 악
플이 기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샘플로서 기록이 되는 거지
다 기록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독자 F]

수집 제외 기록의 범위에 대해서는 면담 참여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
다. 일부는 특정 사건들에 대해 L코믹스 사태와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아카
이브에 굳이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독자 E의 경우 반대로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독자 F는 비난 여론의
기록과 관련하여 사건 기록화가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위험성을 걱정하였
다. 이외에 언급된 고려사항은 L코믹스 사태의 주요 기록 유형인 트위터 기
록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

“공론화 트윗 같은 경우는 공론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지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빨리 확보가 되어야겠죠.” [독자 E]

“(트윗은)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멘션이나 스레드로 얽혀 있을
수 있고. (...)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읽고서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
[독자 F]

온라인상의 사건 자료를 목록화한 경험이 있는 독자 E와 F는 트위터 기
록의 휘발성과 생산 맥락의 파악이 어렵다는 특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
라 트위터 기록을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2) 기록전문가 면담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동시대 사건 기록화에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하였다. 예비 분석을 통한

사건의 맥락 파악, 적극적인 기록 수집 및 생산, 사건 행위자들의 다양한 관점 반영이 입체적인 사건 재현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강점으로 언급되었다.

“사건의 사회적 맥락, 역사적 맥락, 전체를 조망하는 기록화의 방식으로로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가 H]

“기록을 생산해서 획득하는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양적으로 풍부하게 (기록을) 확보할 수 있고. (...) 사건에 개입한 주체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의 기록을 남길 수 있을 것 같고, 입체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록들을 모아낼 수 있을 것.” [전문가 I]

이어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한 동시대 사건 기록화의 실제 수행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내용은 아키비스트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모아진 기록을 통해서 시각이라는 게 보이는 데, ‘시각이 왜 균형적이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지. 사실 균형이 있을 수 없는 건데. L코믹스에 대한 기록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기록을 모으지만 모아진 기록은 피해 작가와 레규연에 대한 맥락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 누구의 입장에서 말을 하도록 할 것인가. 공공기록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이 공평한 지분을 차지하도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 J]

“라포 형성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린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깊이 있게 내용을 분석한다거나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검색도구를 만드는 데로 잘 이어

지지는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기록화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공통분모 같은 게 필요하다.”
[전문가 Ⅱ]

“동시대 사건을 관찰할 때는 사람을 대하는 연구거든요. 그 사람의 포괄적인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전문가 Ⅲ]

이상에서 전문가들은 ①기록화의 관점을 분명히 밝힐 것, ②사건 당사자와 충분한 라포를 형성할 것, ③그들의 포괄적인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기록화 시 아키비스트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목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왜 이 아카이브가 만들어지고 존재해야 되고 지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해요. (...) 말이 아니라 정리된 스테이트먼트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 이 사람들에게 가능한 지속적으로 의견을 물어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정말 구체적인 과제를 줘야 돼요.” [전문가 Ⅲ]

“활동을 수행하는 말단 조직에까지 어딘가에서 ‘공개해라.’ 라고 했을 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록을) 안 주지 않을까요?” [전문가 Ⅱ]

전문가 Ⅲ는 기록화 활동에서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기록화 목표의 합의와 성문화를 제안하였다. 우선 도큐멘테이션 그룹 안에서 기록화 목표를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성문화된 목표를 기록생산자와 이

용자 등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여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키비스트가 이들에게 구체적 과업을 부여하는 방법 또한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

한편 전문가 I는 사적 영역의 기록을 수집할 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행정적 차원의 보호나 기술적 보안 측면에서 기록화 주관기관이 힘을 가져야 기록의 접근제한이나 비공개 지정을 보장함으로써 기록생산자 또는 기증자를 안심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의 지속가능성이 저는 제일 걱정돼요. (...) 그 안에 그 사람이 볼 거,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영상이 됐든 콘텐츠가 됐든 아카이브를 거점으로 한 또 다른 연대활동이 됐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전문가 H]

면담의 마지막에 전문가 H는 기록화의 결과물인 아카이브가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는 아카이브의 성격, 구조, 운영기관 등과 관련되는 문제였고, 결국 기록화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카이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5. L코믹스 사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

이상의 예비 분석과 면담 연구에 기초하여 L코믹스 사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을 기록화 목표와 방향, 원칙, 범주, 주체, 고려사항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1) 기록화 목표와 방향

동시대 사건의 기록화 목표와 방향은 사건 행위자들이 바라는 아카이브의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구체화할 수 있다. 초점 그룹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L코믹스 사태의 이해관계자들은 웹툰·웹소설 작가와 작가 지망생, 플랫폼 사업자, 편집자 등 업계의 전 구성원, 정책 및 법률 입안을 담당하는 공공 영역 행위자, 그리고 연구자들이 아카이브를 찾아오길 기대하였다. 아카이브를 통해 이 같은 이용자들이 불공정 피해에 대응할 힘을 얻거나 업계 노동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L코믹스 사태 기록화의 목표를, ‘웹툰·웹소설 작가들의 노동실태를 알려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불공정과 갑질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성문화할 수 있다. 한편 L코믹스 사태의 이해관계자들은 이 사건이 ‘불공정에 대항한 작가 연대의 승리’로 기억되길 바라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앞서 분석한 L코믹스 사태의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도출할 수 있는 기록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가 연대의 적극적인 대응 활동과 그 성과를 보여주는 기록화를 지향한다. 이는 L코믹스 사태의 사회적 함의를 드러내며, 아카이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둘째, L코믹스의 불공정과 갑질 행위를 증거하는 기록화를 지향한다. 자본력을 가진 기업에 대항하고, 업계의 노동실태를 지속적으로 사회에 알려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 경험과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셋째, 작가들을 존중하는 기록화를 지향한다. ‘작가들은 일개 소모품이 아니며 불공정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달라. 그래서 앞으로는 존중 받고 싶다.’ 초점 그룹 면담에서 작가 C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다. 아키비스트는 기록화 과정에서 작가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또한 아카이브에도 그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업계의 공정성 회복을 바라는 기록화를 지향한다. L코믹스 사태를 관통하는 가치는 생태계의 공존이다. 작가들은 개인의 피해를 넘어 더 멀리 업계 전체의 미래를 바라보며 움직였다. 따라서 그들이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기록함이 마땅하다.

2) 기록화 원칙

기록화 목표와 방향을 기준으로 기록화 원칙을 세운다면, 첫째로 아키비스트는 피해 작가들과 레규연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키비스트의 관점과 평가·선별 과정 등을 아카이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L코믹스 사태는 온오프라인 모두를 배경으로 하며, 네티즌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된 사건이다. 이에 따라 둘째, 수집 대상 기록의 내용과 구조, 맥락을 좁은 범위로 제한하기보다 폭넓은 수집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셋째,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건 행위자들의 기록 또한 적극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피해 작가들과 레규연을 기록화 관점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들과 대립한 L코믹스와 비난 여론의 기록까지도 수집 대상에 포함한다. 이는 사건의 맥락을 보호하면서 입체적이고 풍성한 사건 재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넷째, 웹툰·웹소설 작가들은 기록화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사건 당사자로서 작가 그룹의 참여는 L코믹스 사태 기록화의 동력을 제공하고, 기록의 풍성한 수집과 서사적 진실이 담긴 기록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스스로의 관점으로 사건을 다시 쓰면서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업계 구조를 뒤집으려는 결의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록화의 최종결과물로서 아카이브의 지속가능성을 기록화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민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아카이브의

성격과 구조, 운영주체 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아카이브가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기록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3) 기록화 범주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L코믹스 사태의 기록화 영역을 ①L코믹스의 불공정과 갑질, ②작가들의 대응 활동, ③외부의 협력 활동, ④언론 활동, ⑤여론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불공정과 갑질’에서는 사건 전반으로 논란이 되었던 L코믹스의 모든 가해행위가 드러나도록 불공정행위, 기업의 노동자 통제, 인권 침해 등을 기록한다.

둘째, ‘대응 활동’에는 작가들의 공론화 과정, 연대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과 집회 및 시위, 기자회견 등 행사에 관한 기록, 간담회 및 회의 기록을 통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담는다. 이 영역에서 결락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협력 활동’에는 다수 단체들의 연대 지지, 공공 영역 행위자들의 도움, 그리고 넓게는 기존의 관련 법률과 정책, 업계 전체의 공정상생을 위한 정부기관의 후속조치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언론 활동’에서는 사건 국면을 전환시킬 정도로 파급력이 컸던 취재기사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기사, 작가들을 인터뷰한 매체 자료, 사건을 깊이 있게 파헤친 칼럼이 기록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사건을 증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언론자료의 경우 취재 담당자를 통해 사건 기록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론’에는 사건 전개에 따른 여론의 변화, 해시태그 운동과 불매 운동 등으로 표현된 작가에게 우호적인 독자들의 반응, 반대로 작가들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사이버 폭력과 악성 루머를 양산한 자칭 독자들의 비난 여론을 기록으로 담을 수 있다.

이상의 다섯 가지 기록화 영역으로부터 세부적인 기록화 대상과 각각에서 획득할 기록의 예시를 이끌어내면 <표 3>과 같이 범주화된다.

<표 3> L코믹스 사태 기록화 범주

영역	대상	획득할 기록 예시
불공정과 갑질	불공정계약, 수익 미지급 및 정산 지연, 일방적 계약 해지, 일방적 서비스 종료, 지각비 징수, 블랙리스트 운용, 작가 SNS 사찰, 작가 고소, 저작권 편취, 허위사실 유포, 인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L코믹스의 불공정과 갑질을 입증하는 기록 불공정·갑질 피해 경험과 기억을 말하는 기록 불공정한 계약조건과 플랫폼 정책을 설명하는 기록 피해 작가 고소 관련 법적 기록 L코믹스의 맞대응과 입장변화에 관한 기록 L코믹스의 여론조작을 입증하는 기록
대응 활동	문제 제기, 피해 폭로, 공론화, 연대 결성, 집회, 시위, 신고, 민원 접수, 국민청원, 문체부 미팅, 국회 기자회견 및 간담회, 장기 휴재 및 연재 중단, 노조 설립 등	집회, 1인 시위, 기자회견 활동 기록 간담회 및 회의 기록 온라인상의 사건 공론화 활동 기록 국민청원과 소송금 모금에 관한 기록 불공정·갑질 신고 기록 연대 조직 및 노조 설립에 관한 기록 연대 내부 경험에 관한 기록
협력 활동	연대 지지 선언, 피해 사례 수집, 실태조사, 법률 자문, 간담회 등	공정한 웹툰·웹소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활동 기록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설명하는 기록
언론 활동	현장취재, 피해 작가 인터뷰, 입장 전달 등	티핑포인트가 된 언론보도 취재 활동 기록 사건 관련 전문가 의견 및 칼럼
여론	트위터 해시태그 운동, 불매 운동, 가짜뉴스, 사이버 폭력 등	피해 작가 및 레규연 응원 기록 L코믹스의 불공정과 갑질에 대한 여론 반응을 나타내는 기록 해시태그 운동과 불매 운동 기록 사건 아카이빙 활동 기록 사이버 폭력과 악성 루머를 증거하는 기록

4) 기록화 주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도큐멘테이션 그룹에는 아키비스트와 피해 작가, 레규연 활동 경험이 있는 작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대 사건 기록화에는 사건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로 요구된다. L코믹스 사태는 주요 쟁점이나 성격이 같으면서도 엄연히 다른 다수의 개별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사건마다 당사자가 다를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당사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의견,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당사자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작가들의 공동 대응을 기록하거나 L코믹스 사태의 전체 맥락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레규연 소속 작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들은 L코믹스 사태의 중심에서 다른 모든 사건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행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협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여기서 아키비스트는 사건의 심층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구비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특성, 웹툰·웹소설 업계의 시스템과 현황, 문화, 작가의 직업 특성과 노동실태 등에 관한 포괄적 지식을 사전에 갖추어야 사건을 맥락성 있게 소화할 수 있고, 기록화에 참여하는 사건 행위자들과 무리 없이 소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작가들을 대하는 자세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구상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레규연은 현재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처음부터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느슨한 단체였기 때문에 기록화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주관기관은 디지털콘텐츠 창작 노동자들의 조합인 디콘지회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 L코믹스 사태는 디지털콘텐츠 업계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고, 디콘지회가 설립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면담에서 활동가 G는 레규연처럼 활동하던 단체가 노조를 결성하고 한참이 지나 협력 단체에게 본인들의 초창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활동 과정에서 기록을 남기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활동 초기에 이러한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노조는 기성권력으로

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시민사회에 상대적으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지닌다. 한편 디콘지회는 당장에 웹툰과 웹소설 창작 노동자의 유일한 연결지점이며, L코믹스 사태에서 발견되는 작가들의 지향과 디콘지회의 지향이 일치하고, 레규연의 일부 구성원은 디콘지회에도 소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디콘지회에서 기록화를 주관하고 아카이브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다만 노조 활동과 함께 기록화 작업과 아카이브 운영을 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자나 전문업체가 기록화를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직하다.

5) 고려사항

L코믹스 사태 기록화 과정에서 도큐멘테이션 그룹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전문가들은 사건 행위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와 인권보호에 주의하며 기록화를 수행해야 한다. 동시대 사건 기록화는 당사자가 살아 있는 시점에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 기록화가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피해 당사자가 공론화하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어도 아카이브에 공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둘째, 사건 행위자들과의 상호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결박 없는 기록의 생산·수집을 위해 아키비스트는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기록화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불편부당성과 연구 윤리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기록화 주관기관과 운영기관을 통해 접근제한과 보안 등 사적 영역의 기록을 보호할 방법을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엄격히 실천함으로써 기록화에 참여하는 사건 행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셋째, 기록화 과정의 가변성에 유의해야 한다. L코믹스 사태와 같은 동시대 사건은 1차, 2차 사건 이후로 새로운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 또한 항상 열려 있다. 기록

화 영역 혹은 초점 그룹이 추가되는 경우 사건 행위자들의 관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참여와 협력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수의 개인과 조직이 하나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기록화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협력기관 간에 신뢰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인, 공식적이고 비공식적 만남과 회의가 필요하며 이를 낮은 단계에서부터 명문화해야 한다.

6. 맺음말

본 연구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동시대 사회적 사건을 기록화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 판단하고, L코믹스 사태를 중심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한 동시대 사건 기록화 방안을 논하였다. L코믹스 사태는 자본과 정보력을 가진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맞서 프리랜서 창작 노동자들이 연대를 결성하고 대응하여 마땅한 권리를 찾고자 했던 사건으로, 사적 행위자들 간의 문제로 치부되기 쉬우나 실상 차별과 억압으로 다져진 사회 시스템 아래에서 고통 받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동시대의 사건 중 하나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L코믹스 사태를 중심으로 동시대 사건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을 모색하며, 그 첫 단계로 개요, 특징, 전개 과정과 핵심사건, 초점 그룹 등으로 사건의 맥락을 분석하고 기록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사건 이해관계자와 기록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의견 및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L코믹스 사태의 기록화 목표를 ‘웹툰·웹소설 작가들의 노동실태를 알려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불공정과 갑질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

정하고, 작가 연대의 대응 활동과 성과를 보여주는 기록화, L코믹스의 불공정과 갑질을 증거하는 기록화, 작가를 존중하는 기록화, 공정성 회복을 위한 기록화를 지향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기록화 원칙, 범주, 주제, 고려사항을 차례로 논하며 L코믹스 사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을 제안하였다.

로컬리티와 공동체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연구가 일정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것에 반해, 사회적 약자의 동시대 사건 기록화에 집중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그러나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높은 자유도를 가지는 만큼 서로 다른 동시대 사건의 특성들을 포착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 범용성의 측면에서 그 가치가 크다. 이에 따라 L코믹스 사태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논한 본 연구가 사회적 약자의 동시대 사건 기록화라는 도전적 과제와 그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유승, 류반디. 2015.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173-194.
-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7-230.
- 설문원. 2012. 공간 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설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37-455.
- 설문원. 2014. 환경갈등의 기록화를 위한 내러티브 설계 :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사례로. 『기록학연구』, 42, 287-326.
- 설문원, 최이랑, 김슬기. 2014. 오픈소스를 활용한 사건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건을 사례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7-36.
- 심성보. 2014. 4·16 세월호 참사 기록,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57, 14-26.
- 안병우. 2015. 세월호 사건 기록화의 과정과 의의. 『기록학연구』, 44, 217-241.
- 이승억. 2013. 경계 밖의 수용 :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연구』, 38, 189-223.
- 채오병. 2009. 사건사의 인식론과 방법론. 『사회와역사』, 83, 157-185.
- Abrams, Philip. 1982. *Historical Sociology*. Cornell University Press. (신용하 역. 1986. 『역사사회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Griffin, Larry. 1992. Temporality, Events, and Explanation in Historical Sociology.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0, 403-427.
- Ham, F. Gerald. The Archival Edge. 1975. *The American Archivist*, 38(1), 5-13.
- Hackman, Larry & Warnow-Blewett, Joan. 1987. The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 A Model and a Case Study. *The American Archivist*, 50(1), 12-47.
- Johnson, Elizabeth. 2008. Our Archives, Our Selves: Documentation Strategy and the Re-Appraisal of Professional Identity. *The American Archivist*, 71, 190-202.
- Malkmus, Doris. 2008. Documentation Strategy: Mastodon or Retro-Success?. *The American Archivist*, 71(2), 384-409.
- Samuels, Helen. 1986. Who Controls the Past. *The American Archivist*, 49(2), 109-124.
- Sewell, William. 1996. Historical Events as Transformations of Structures: Inventing Revolution at the Bastille. *Theory and Society*, 25, 841-881.
- Zinn, Howard. 1977. Secrecy, Archives and the Public Interest. *The Midwestern Archivist*, 2, 14-26.

- 쿠키뉴스. 2018. 2. 19. 콘텐츠 플랫폼이란 ‘괴물’의 횡포. 검색일자: 2019. 5. 15.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25730>.
- 한겨레. 2018. 1. 18. L코믹스 작가들은 왜 1인 시위에 나섰다. 검색일자: 2019. 5. 15.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28330.html.
- 오마이뉴스. 2018. 7. 12. ‘웹툰 1위’ L코믹스 앞에 미래알? “한 데 뭉친 작가들은 강했다”. 검색일자: 2019. 5. 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3521.
- 경향신문. 2018. 1. 5. 작가를 도구로 만드는 ‘문화 콘텐츠 디스토피아’ L코믹스. 검색일자: 2019. 5. 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51718005&code=960100&www.
- 위근우. 2019. 싸우는 작가들, 연대하는 작가들. 『지금, 만화』, 2, 51-57.
- 미디어스. 2018. 1. 29. ‘L코믹스 사태’, 기자 밥값은 아쉽지 않네. 검색일자: 2019. 5. 19.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96>.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자: 2019. 5. 15.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